

다산학 48호 (2026.6) | 429~446

서평: 한형조 『두 개의 논어』

이영호 |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교수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논어』를 읽는 두 가지 독법
3. 한형조의 『논어』 독법
4. 마무리

1. 들어가는 말

나는 일전에 한형조 교수의 유고인 『두 개의 논어』(김영사, 2025) 춘평을 『창작과 비평』 211호(2026년 봄호)에 게재한 바 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춘평이었는지라, 서술 분량의 제한으로 인해 논의에 아쉬운 바가 있었다. 이번에 이 지면을 빌려 더 자세하게 이 책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조금 더 천착해 보고자 한다.

한형조의 이 책은 그 자신을 포함하면, 모두 네 사람이 주인공이다. 공자, 주희, 정약용, 한형조이다. 공자의 언설을 주자와 다산이 들여다 보면서 각기 다른 해석을 하였다. 그는 이 책에서 공자의 언설을 보면서 『논어』의 본지를 더듬고, 더 나아가 주자와 다산의 해석을 비교분석하면서 자신의 소회를 덧붙이고 있다.

『논어論語』와 주희朱熹의 『논어집주論語集注』, 정약용丁若鏞의 『논어고금주論語古今註』는 동아시아적 사유를 전형적으로 드러내어 주는 책이다. 동아시아의 사상을 읽어내고자 하면, 이 세 전적에 대한 정리 혹은 자득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 세 책은 각기 그 하나만을 살펴보고자 하여도 연구자의 일생이 소요되는 지난한 작업이다. 때문에 이 모두를 다루는 연구는 쉽지 않다. 그래서 『논어』에 관한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두 주석과 그 주석에 대한 총괄적 이해는 아득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 작업을 한형조 교수는 과감하게 그리고 정밀하게 수행하였다. 그 결과물이 바로 『두 개의 논어』이다.

이 책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종래 『논어』를 읽는 전통적인 독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2. 『논어』를 읽는 두 가지 독법

공자의 어록집인 『논어』의 영향력은 동아시아 역사에서 최고의 위상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논어』를 처음 읽어본 이들은 그 영향력에 비하여 다소 밋밋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 그야말로 일상의 규범과 소소한 에피소드로 구성된 듯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어떤 비의秘義가 숨어 있기에 이런 영향력을 지니게 되었는가?

실상 『논어』를 읽은 많은 이들은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그 비의를 밝혀놓았는데, 크게 보면 두 갈래이다. 첫째는 정이程頤(1033~1107)의 ‘수지무지족지도지手之舞之足之蹈之’이며, 둘째는 조보趙普(922~992)의 ‘반부논어치천하半部論語治天下’의 두 길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천여 년 전을 살았던 두 인물은 각기 내면 탐구의 길과 외면 정치의 길을 『논어』에서 근거를 찾아 이렇게 말로 남겨 놓았는데, 이후 『논어』를 공부하는 이들의 좌표가 되었다.

먼저 정이程頤의 ‘수지무지족지도지手之舞之足之蹈之’라는 구절은 주자朱子が 지은 『논어집주』 「서설」에 나온다. 정이는 주자의 선배 학자로서 그의 형 정호程顥와 더불어 성리학을 구축한 대표적 학자이기도 하다. 주자는 정이의 말을 빌려 『논어』를 읽는 네 부류의 사람을 언급하였다.

가장 최하인 사람의 『논어』 독법은 ‘읽고 나서 아무 일도 없는 자(讀了全然無事者)’이며, 중간 정도의 사람은 ‘읽고서 한 두 좋은 구절을 찾아서 기뻐하는 자(讀了後 其中得一兩句喜者)’이고, 상급의 사람은 ‘읽고서 이 책의 좋음을 아는 자(讀了後 知好之者)’이며, 최상급의 사람은 ‘읽고서 곧바로 손과 발이 춤추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讀了後 直有不知手之舞之足之蹈之者)’이다.

정이에 의하면 『논어』를 읽는 즉시 손과 발이 춤출 정도의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 최상의 독자이다. 이런 희열은 그 개인의 깊은 내면에서 어떤 체험 혹은 깨달음에서 오는 감정이다. 즉 정이에게서 제시된 『논어』를 읽는 최종 목적지는 인간의 내면에 닿아 있다.

한편 ‘반부논어치천하半部論語治天下’라는 구절의 출전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대체로 정이 보다 조금 앞선 시대를 살았던 조보趙普의 말로 전해진다.(羅大經, 『鶴林玉露』)

조보는 북송의 초대 황제 태조 조광윤趙匡胤을 도와 송宋을 세우고, 이후 오랜 기간 재상을 역임하였다. 송 태조의 사후, 송의 2대 황제인 송 태종이 즉위하자 연이어 재상에 임명되었으며, 이후 송의 태조와 태종을 도와 천하를 안정시켜 대일통을 이룩하게 한 인물로 평가받았다.

앞서 언급한 ‘반부논어치천하半部論語治天下’는 송태종과의 대화에서 나온 말이다. 태종이 조보의 정치력에 대하여 언급하자, 조보는 “반 권의 『논어』로 태조를 보좌하여 천하를 평정하였고, 나머지 반 권으로 지금의 폐하(태종)를 보좌하여 태평성대를 이룩하고자 합니다.”라고 하었다고 한다.

이후 조보의 ‘반 권의 『논어』로 천하를 다스린다(半部論語治天下)’는 말은,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쳐서 유학의 정치적 지향을 이야기할 때 전형적으로 언급되곤 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유학의 두 축은 수기修己와 치인治人이다. 기원후 천 년 전후로 등장한 정이와 조보는 모두 유학자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인물이다. 그러나 전자는 전형적인 학자로 후자는 관료로 성장하였다. 이 차이는 『논어』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을 가능케 하였다. 정이는 수기에 몰입하여 개인 자아에서 솟아오르는 어떤 감동에 초점을 맞추어 『논어』를 읽었고, 조보는 정치에 치중하여 타자를 다스리는 치세의 도

구로 『논어』를 활용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수기와 치인, 개인 수양과 치세 도구로 읽혀진 『논어』의 분기를 볼 수 있다.

동아시아 사상사에서 이 지점을 가장 전형적으로 드러낸 유학자가 바로 주자와 다산이다. 주자는 정이의 노선을 다산은 조보의 관점을 견지하였다. 그리고 그 독서의 결과물이 바로 『논어집주』와 『논어고금주』이다.

한형조는 이처럼 상이한 지향을 지닌, 두 종의 『논어』 주석서를 관통하여 읽고자 하였다. 그 노력이 소산이 바로 이 서평의 대상인 『두 개의 논어』이다.

3. 한형조의 『논어』 독법

일찍이 증자는 “새가 죽을 때 그 울음이 슬프고, 사람이 죽을 때 그 말이 선하다.”(鳥之將死 其鳴也哀 人之將死 其言也善 —『論語』, 「泰伯」)라고 하였다. 이 책, 『두 개의 논어』는 한형조 교수의 유작으로 미완의 원고이다. 그가 세상을 뜬 후, 제자들이 컴퓨터에서 유문을 찾아 책으로 엮었다고 한다. 증자는 사람이 죽을 때 그 말이 선하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여기서 그가 남긴 ‘선한 말(善言)’의 형상이 어떤지를 보면서 이 책의 의미를 되새김과 동시에 그를 추모하고자 한다.

한형조 교수의 구상에 의하면 애초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사건과 인물, 2부 제자들, 3부 공자의 사상이다. 그러나 현재 이 책은 이 3부에 덧붙여 한형조의 다른 유문과 그를 추억하는 동료의 글을 엮어서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두 개의 논어』는 4부로 구성되어 있는 셈이다. 그 개략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1부 사건과 인물】 공자의 일생에서 특기할 만한 사건과 인물을 다루고 있다. 제경공, 양호, 남자南子, 은둔자 등등이다.

【2부 제자들】 공자의 대표적 10명의 제자 중, 안회, 자공, 자로를 골라 언급하고 있다.

【3부 공자의 사상】 공자 사상을 구성하는 많은 개념 중에서, ‘학’
‘學’, ‘인仁’, ‘천天’, ‘정政’에 관한 주자와 다산의 주석을 비교하면서 이 양자를 회통하는 논어상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부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공자세가」 번역, 2장은 정민 교수 발표에 대한 장문의 논평, 3장은 좋아하는 고전 구절, 그리고 평생을 함께한 학문적 동지 최진덕 교수의 추모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의 내용은 거의 1,000페이지가 넘는 지면에 담겨 있기에 모두 언급할 수도 없고,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여기서는 4부(부록 포함)로 구성된 이 책에서 한형조의 사유를 잘 드러내고 있는 대목들을 중심으로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전에 이 책의 뼈대를 구성하는 그의 생각을 먼저 들여다보기로 하겠다.

『두 개의 논어』는 『논어』의 경문보다, 그 주석으로서 주자와 다산의 해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약간은 도식적이긴 하지만 『논어』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한형조는 이 두 경학자의 사유를 대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의 목소리를 통해 이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주자학: 주자학은 ‘자기의 발견’에서 시작한다.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지만, 주자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27쪽) 그리하여 주자학은 ‘자기 발견’에 올인한다. “나는 누구인가?” 자기 존재의 본성은 유전적 제약, 이기적 관심, 나르시스적 자기기만과 감정 편향 등으로 덮여 있다. 이 장애를 뚫고 자신과 만나기 위한 오랜 적공이 필요하다.(28쪽)

다산학: 다산은 이 ‘발견’의 기획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 순진한 기획은 철학자의 이상향이자, 현실 정치를 고려한 해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산의 시대는 근본적인 변혁의 ‘인위적’ 설계가 필요한 때였다. 안정된 세상에는 주자의 기획이 유효할지 모른다. 주자학이 보수적 성격을 띠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나 다산은 ‘혁신’을 꿈꾼다.(29쪽)

주자와 다산의 논어학: 주자와 다산, 두 거장의 『논어』 해석 차이는 그들이 처한 환경, 문체, 그리고 개성의 산물이다.(43쪽) 나는 두 거장의 해석 정신의 차이를, 서양의 고전적 어법으로 ‘명상(vita contemplativa) vs. 활동(vita activa)’으로 읽는다. 주자는 인仁을 자기 내부에서 ‘명상’을 통해 발견하라고 권하는데 비해, 다산은 이 덕성이 내부에 있지 않으며 사회적 공간에서 행동의 선택을 통해 힘겹게 축적되는 외재적 단상임을 역설한다.(34쪽)

한형조가 파악한 주자와 다산의 『논어』 해석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정리와 조보의 『논어』 독법에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런 상이한 지향을 세밀하게 읽어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먼저 그 해석의 결을 정밀하게 살펴야 하고, 다음으로 비교를 통한 의미의 층위를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융통 혹은 양립할 수 있는 어떤 형상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참으로 고단한 작업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형조는 이 작업을 해 나가면서, “두 사람의 고전 해석을 추적하는 것은 신나는 모험이다. 장면 하나하나마다 드라마틱한 대치가 손에 땀을 쥐게 한다.”(27쪽)라고 한다. 그야말로 호학자의 심경을 대변하는 언어라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 책의 목차를 따라 읽어가면서 한형조의 주자와 다산의 『논어』 해석의 독법을 들여다보기로 하자.

【1부 사건과 인물】

공자의 일생에는 중요한 삶의 변곡점이 있다. 사마천의 「공자세가」 이래 공자 전기를 읽어보면 우리는 그 삶의 변곡점에 등장하는 사건과 인물을 알 수 있다. 한형조는 이 중에서 노나라 소공昭公의 친위쿠데타와 망명, 이후 기나긴 망명길에서 제경공, 양호陽虎, 남자南子, 초나라 은자 등과 만남, 진채陳蔡 사이에서의 고난에 관한 주자와 다산의 해석에 주목하였다.

이런 사건과 인물이 등장하는 『논어』의 경문은 앞뒤 설명이 없다. 짙막한 경구로만 이루어져 있다. 때문에 이 경문이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발화된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 상황을 언급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다.

다산의 경우, 역사적 비평가의 안목을 갖고 있다. 『논어』에 나오는 수많은 기사와 발언의 정황은 무엇인가? 질문은 왜 나왔고, 대답은 구체

적으로 무엇을 전해 주고자 하는가? 공자의 발언은 ‘일반적’ 충고인가, 아니면 ‘구체적’ 내용을 한정적으로 갖고 있는가? 다산은 여기 분명한 구체적 맥락을 찾아 들어간다.(82~83쪽)

한편 주자 또한 『논어』의 맥락과 현장을 찾아간다. 그러나 그는 『논어』 전편을 역사적으로, 비평적으로 접근해 가지 않는다. 그는 철학적 정향의 인물이며, 이를테면 ‘보편적 진리(理)’를 찾고자 한다. 그 진리는 그가 읽어낸, 우주와 인간에 대한 장대한 형이상학과 인간론, 그리고 삶의 길에 대한 독자적 통찰에 기초하고 있다.(83쪽)

공자 나이 56세에 고국 노나라에서 실의한 뒤, 벼슬을 버리고 기나긴 방랑길에 올랐다. 이후 13년간의 유랑 생활 중 위衞나라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 나라 정치의 한 가운데 들어서게 된다. 특히 여기서 위나라 영공靈公의 부인인 남자南子와 관련은 『논어』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공자는 망명 기간 동안 여러 사람을 만났다. 이 과정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사람을 만나서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문제는 그 해결의 과정에서 발화된 공자의 말씀에 관한 해석에서 길이 나뉘어졌다. 여기서 주자는 그의 철학적 견해에 따라 명분론(도덕적 관점)에 치중하여 해석하였고, 다산은 실리에 의거하여 현실적 측면에 치중하여 해석하였다.

일견하기에 여기서 한형조는 어느 정도 다산의 편에서 있는 듯하다. 일찍이 한형조는 “예는 결국 ‘관계’의 기술이다. 그 근본정신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고, 나의 편견과 공격성을 제어하는 자기 훈련이다.”(71쪽)라고 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명분보다 실리에 의한 공존을 추구한 다산의 해석이 한형조에게는 더 와 닿은 듯하다.

【2부 제자들】

공자의 제자들은 모두 3천 명이었다고 하나, 『사기』를 보면 77명의 제자들을 거론하고 있다. 그리고 『논어』에는 ‘공문십철孔門十哲’이라 일컬어지는 10명의 제자들이 등장한다. 한형조는 이중, 정사의 자로, 언어의 자공, 덕행의 안회를 골라 『두 개의 논어』에서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논어』에는 가장 많은 제자들이 동시에 등장하고 또한 편폭이 매우 긴 경문이 있다. 바로 ‘욕기장浴沂章’이라 일컬어지는 「선진」25장이다. 여기에는 자로, 증점, 염구, 공서화가 공자를 모시고서 대화를 나누는 풍경이 그려져 있다. 그 대화는 공자가 제자들에게 각자 자신의 이상을 말해 보라고 하는 데서 시작한다. 여기서 자로는 군사대국, 염구는 경제대국, 공서화는 예의지국을 언급하였는데, 증점은 기수沂水에서 목욕하고 무우舞雩에서 바람을 쐬면서 소요하고자 하는 희망을 피력한다.

그런데 공자는 이 네 제자들의 지향에서 증점曾點을 꼭 집어서 “나는 증점과 같은 생각이다.”라고 평하였다. 이 ‘여점지탄與點之嘆’을 두고서 주자와 다산은 해석을 달리한다. 먼저 주자는 증점이 자연과 함께하면서 더불어 한몸이 되는 천인합일의 경지에 대하여 공자는 감탄하였다고 보았다. 반면에 다산은 증점의 소요는 천인합일의 고매한 경지가 아니라 공자 학단의 정치적 열정이 세상과의 불화로 인하여 그 뜻을 펼치지 못함에서 오는 운명에 대한 탄식으로 읽는다. 이렇게 보면, ‘여점지탄與點之嘆’ 또한 달리 읽힌다. 주자는 ‘증점과 함께하겠다는 감탄’으로 읽었고, 다산은 ‘증점과 함께하겠다는 탄식’으로 읽었다.

이 양상을 두고서 한형조는 다산이 『논어』를 주자학의 우주-인간론적 모형으로부터 건져내 ‘인간사의 도전’으로 복귀시켰다고 평가하였

다.(253쪽) 그리고 이 ‘육기장浴沂章’의 서로 다른 해석을 두고서 주자와 다산의 전투라고 하면서, 무위와 유위 혹은 명상과 정치 사이의 접전이 라고 묘사하기도 하였다.(254쪽)

한편 자료의 많은 언행을 두고 주자와 다산의 해석이 나뉘어 졌을 때, 일단 한형조는 다산을 중심에 두고서 주자에서 다산으로 해석의 변천이 지니는 의미에 대하여 천착하였다. 그리고 그 해석의 중심에는 주자학이 지워버린 구체적 대상을 복원하고자 노력한 다산의 주석에 큰 가치를 두었다. 다산의 이런 해석에 대하여, 한형조는 주자학의 고립적인 정신의 자기 내적 순수와 평정에서 벗어나 유학의 본래적 덕목인 관계 속의 공공적 태도로 복귀하였다고 고평하였다.(265쪽)

그런데 제자들을 다루고 있는 이 챕터에서 한형조는 어떤지 주자학의 자기 내적 순수와 평정에 대하여 지나칠 정도로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논어집주』 뿐만이 아니라, 『논어혹문』, 『논어정의』 등과 퇴계, 율곡의 설도 인용하면서 주자의 해석에 어떤 일인지 더 열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특히 주자학의 핵심 이념인 ‘경敬’에 대해서는 그 분석과 의미부여가 보기 드문 미문美文이다. 몸은 다산에게로 가 있지만 고개는 주자로 돌리고 있는 듯이 보인다.

【3부 공자의 사상】

『논어』에 들어 있는 공자의 사상은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한형조는 학學, 천天, 인仁, 정政에 대한 공자의 언설을 공자 사상의 핵심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이 장에서는 이 네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공자, 주자, 다산의 사유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 책의 거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한형조 교수가 정성을 들여 글을 썼는데, 별도로 한 책을 이를 정도로 그 질과 양의 측면에서 우뚝하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일목요

연하게 정리하기도 쉽지 않다. 수박 겉핥기식으로나마 한교수의 논의를 들여다보기로 하겠다.

먼저 ‘학學’에 대한 공자의 말씀과 이에 대한 주자와 다산의 견해에 관한 비교이다.

한형조는 공자의 ‘학’을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추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혼신을 다하는 것’(533쪽)으로 파악하였다. 여기서 문제는 공자 자신이 추구하였던 학의 정체가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한교수가 보기에 주자와 다산은 여기서부터 길을 달리한다.

먼저 주자는 공자의 학이 ‘자각 혹은 깨달음’의 길이라고 본 반면, 다산은 공자의 학을 구체적 대상으로 좁혀 육례六禮에 대한 습득과 일상적 규범(인륜)의 실천으로 규정하였다. 여기서 내적 명상으로서의 심성학과 외적 실천으로서의 윤리학으로 그 길이 달라진다.

주지하다시피 공자 학문의 종점은 그의 나이 칠십에 이르러 도달한,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의 경지이다. 그 학문의 여정이 깨달음의 길이든 인륜의 실천이든 그 종점에 이르기까지는 긴 시간과 막대한 심력이 소모된다. 한형조는 이 두 학자의 지고한 노력을 두고서, “주자보다 다산의 해석이 아무래도 실상에 더 근접해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공자 삶의 결산이라 할 70세, ‘從心所欲不踰矩’에 대한 그의 해석은 너무 날카롭고 지나치게 긴장되어 있다고 생각한다.”(600쪽)라고 하였다. 이 기술을 보면 한형조는 다산의 편에 선 듯하다. 그러나 그 뉘앙스는 자못 주자에 기울고 있다.

한편 ‘천天’은 유학이 등장하는 첫머리에 등장하는 중요개념이다. 유학의 시원에 해당되는 경전인 『서경』과 『주역』에서 천은 중심주제였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주자학은 유학의 핵심개념인 천의 속성이라 할 수 있는 절대성과 결별하고, 하나의 거대한 이치(혹은 이법)로 전환

하였다. 주자학의 너머로 돌아가고자 하는 다산의 시도는 여기에 대하여 당연히 비판적이었다.

한형조는 이를 두고서, “다산에게 이 ‘운명’을 주재하시는 분은 다른 아닌 ‘하느님(天)’이다. 그분은 저 너머 어디에선가 계신다. 주자가 일찍이 종교적, 절대적 타자성을 탈각시키고 자연적 과정으로 낙착시켜 둔 것을, 다산은 다시금 복권하고자 한다. 다산은 주자학의 래디컬한 합리화가 유교의 근본정신을 훼손했다고 생각한다.”(645쪽)라고 하였다.

다산의 이러한 관점은 당연히 천의 종교적, 절대적 타자성을 복권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이는 천주교에 대한 다산의 신앙 혹은 배교와 맞물려 지금까지도 다산학의 정체성을 두고 격론을 일으키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전근대 한국의 천주교를 연구하는 이들은 다산의 정체성을 천주학에 두었으며, 유학을 연구하는 이들은 다산의 학문이 정통 유학에 기반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런 상반된 논의는 다소 감정이 섞인 가운데 현재 진행형이다.

여기서 한형조는 다산이 신학적 토대 위에 자신의 학문을 세웠지만 결국은 가톨릭과 결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가 보기에 다산의 하느님은 저 멀리 어디에선가 초월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 따로 모시거나 경배할 하느님은 없다. 그러다 보니 이 하느님과 교통하는 성소나 교회도 필요치 않는다. 오직 인간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만 하느님과 교통할 수 있다. 정리하면 다산의 하느님이 임하는 장소는 타인이 모르는 내 마음의 소리이고, 하느님의 살핌은 교제, 즉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유학의 핵심개념인 ‘인仁’을 보는 다산의 견해가 이루어지고, 또한 그의 정치적 주장도 펼쳐진다. 공자는 인을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愛人)’로 규정했지만, 주자는 이를 원리로 변환하여 ‘사랑을 가능케 하

는 이치(愛之理)'라고 하였다. 다산은 이를 다시 공자의 원의로 돌려,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바로 '인'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보면 다산학이 주자학과 대척점에 서 있는 관건은 현실에서의 구체적 관계의 삶이다. 다산이 보기에 주자학이 애초 유학이 가진 이런 현실과 구체성에서 이탈하여 추상적 심성(이치)으로 몰입한 것은 불교의 짙은 영향 때문이었다. 다산학의 이런 지향을 두고서 한형조는, "다산은 왜 그토록 주자의 경학에 반기를 들었는가? 바로 유교를 '정치' 위에서 논하고자 함이다. 주자와 다산 사이? 나는 그것을 한마디로 '명상에서 정치로'로 정위한다." (781쪽)라고 하였다.

【부록】

부록은 총 4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부분 3편은 한형조의 유문이며, 마지막 1편은 그와 함께 평생을 학문의 동지로 지낸 최진덕 교수의 회고로 이루어져 있다.

한형조의 유문은 『사기』 「공자세가」 번역, 정민 교수의 다산 관련 논문에 대한 장문의 논평,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구절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부록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은 정민 교수의 다산과 서학 관련 논문에 대한 논평과 최진덕 교수의 회고이다. 전자에서 우리는 한교수가 종래 다산과 서학 관련에 대한 논의를 총결하고 자신의 입론을 확정해 나가는 과정을 볼 수 있고, 후자에서는 그의 인간적 면모가 어떠했는지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다. 나는 『창작과 비평』 촌평에서 이 부록의 최진덕 교수의 회고를 두고서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하였다. "개인적으로 이 책은 처음부터 읽어나가기보다는 가장 끝에 위치한 최진덕 교수의 이 추모사를 먼저 읽기를 권유한다. 『두 개의 논어』라는 책이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바다 사나이 한형조가 육

지 속에서 어떻게 공부하고 살아가다가 스러져갔는지를 감동적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4. 마무리

중국, 대만, 한국, 일본에서는 공히 자국의 경전주석을 회집해 놓고 있다. 『논어』에 한정하자면, 중국의 경우 『사고전서四庫全書』, 『통지당경해通志堂經解』, 『황청경해皇淸經解』 등의 『논어』 주석서 부분에서, 대만은 『무구비재논어집성無求備齋論語集成』에서, 일본은 『일본명가사서주석전서日本名家四書註釋全書』 논어부에서 그 양상을 알 수 있다. 한국은 근년에 이루어진 『한국경학자료집성韓國經學資料集成』 논어부에서 또한 그 전모를 살펴볼 수 있다.

『논어』 주석의 양을 보자면, 『주역』과 더불어 압도적으로 양이 많다. 또한 경학사적 측면에서 보면, 중요한 주석들이 다수 있다. 유학의 탄생 이래, 새로운 유학적 사유가 등장할 때면 거의 예외 없이 『논어』의 주석을 통해 발표되곤 하였다. 한형조가 앞서 살펴본 두 개의 『논어』의 주자의 주석과 다산의 주석이 대표적이다. 바로 중국의 주자학과 한국의 실학적 사유를 전형적으로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이다.

한편 한형조는 『논어』 주석의 이런 양상을 두고서, “주자의 새로운 해석이 표준적 권위를 인정받았고, 다산의 주석은 고금의 주석을 종합, 비평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저작을 축으로 하면 『논어』의 해석을 대략 포괄한다고 나는 생각한다.”(501~502쪽)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두 주석을 비교분석하면서 명상의 『논어』와 정치의 『논어』로 정위하였다. 주자는 명상을 통해 심성을 회복하고 여기에서 우주의 근원을 탐색하

고자 하였으며, 다산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회복의 장치로서 정치를 전면에 내세웠다. 양자의 이런 지향을 두고서 한형조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하였다.

“다산은 유교의 정신을 ‘우주론적 자연론’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되찾고 싶어 한다. 그것이 비조 공자를 축으로 내려온 유교의 유구한 전통 아닌가? 그런데 주자와 송대 유학이 이 기본원리를 왜곡, 변질시켜 버렸다. 그렇게 유교가 무력해졌고 낮설어졌다. ‘하나의 이치(一理)가 인간과 우주를 통관하고 뒤섞임으로써 형이상학의 늪에 빠졌고, 인간은 일상에서 무엇을 성취해 나가야 할지 모르게 되었다.’ 다산의 목소리는 주자학의 초석을 뒤흔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공맹의 근본정신으로 회귀하고자 했다.”(365쪽)

한형조가 대조적으로 파악한 두 『논어』의 지향은 종래 『논어』를 읽는 대표적 두 가지 독법의 계승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책에서는 다산의 『논어』를 중심으로 주자의 『논어』를 대비하고 있다. 그러기에 이 책의 주인공은 얼핏 다산인 듯하다. 그러나 그 행간에 놓인 주자의 『논어』에 대한 한형조의 애정을 숨길 수 없다. 이 책의 서론 말미에서 한형조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금은 다원의 시대, 어느 쪽 편을 들든 좋다. 다만 한쪽을 권위로 추종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공감하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배척하면서도 장점을 읽을 수 있는 균형 잡힌 안목,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은 주자의 접근처럼 ‘명상’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너는 누구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기 이전에, 자신이 누구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고 인성 함양 없이, 가족과 사회에서 적절한 관계를 맺고 정치적 책임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주자학은 낡은 사유, 무책임한 기획이 아

니다.”(56쪽)

어지러운 세상을 걱정한 다산의 고뇌가 담겨 있는 『논어고금주』에 대한 한형조의 애정은 각별하다. 그러나 어지러운 세상은 외재하는 현실의 교정만으로는 건너가기가 어렵다. 내면의 자각을 통해 세상이 주는 고통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이 함께 해야만 한다. 주자의 『논어집주』가 필요한 대목이 여기에 있다. 때문에 한형조는 다산의 반격에 의해 자칫 낡은 사유로 치부될 주자의 사유를 한편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말년의 한형조는 자못 주자학의 이 사유에 침잠한 듯하다.

인간 내면에 대한 탐색은 어찌면 철학을 자기 업으로 시작한 이의 당연한 귀착일지도 모르겠다. 주자와 다산 뿐 아니라 공자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이에 대하여 한형조는,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이 내 존재의 의미인가?’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공자는 이 물음으로 자신의 인생 여정을 시작했다고 나는 생각한다.”(507쪽)라고 하기도 하였다.

세상의 현실에 대한 비판은 타자에 대한 측은지심이 그 근간에 있다. 이에 비해 자신의 본성에 대한 탐색은 자신의 고단한 삶에 대한 측은지심의 발로라고 할 것이다. 세상의 광포한 세력과 현상에 대한 교정이 쉽지 않듯, 자신의 본성을 찾고자 하는 여정도 결코 만만치 않다. 태어나면서 이 길을 알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그런 축복은 아무에게나 오지 않는다.(510쪽) 단단한 결심으로, 흡사 무릎까지 꿇인 눈을 두 발로 치고 나가듯 길을 헤쳐 나가야 하니, 이 길은 죽은 후에야 끝날 것이다.(710쪽)

사정이 이러하기에 우리는 『두 개의 논어』에서 이 길을 걸어가는 한형조의 삶의 고단함이 보인다. 그의 고단함은 때로, “동물은 좋겠다. 본능이 모든 것을 지시해주니까.”(506쪽)라고 할 정도이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산과 주자를 통해 인류의 지성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간 길을 조망하려고 하였다. 이제 그는 가고 없지만, 그의 이러한 노력은 인간이 존속하는 한 계속될 것이다. 어떤 세상이 닥치더라도 인간은 이 두 길을 걸어가야만 종족의 보존이 가능할 듯하기 때문이다.

때로 하늘은 무심하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이들을 일찍 데려간다. 그는 조금 더 우리 곁에 있어야만 했었다.

(논문투고일 2026년 4월 10일, 게재확정일 2026년 4월 20일)